

# 전북대학교 국제교류 확대 파란불

### 베트남 호치민 주요대학 잇따라 방문... 교류 강화 연구센터 건립 등 논의

베트남이 아시아의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베트남 주요 명문 대학과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지난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와 호치민 자연과학대 등을 방문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를 찾은 이남호 총장은 이 대학 보반센(Vo Van Sen) 총장을 만나 전북대에 베트남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베트남어와 문화, 경제, 역사 등을 가르쳐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환학생 및 단기 연수의 확대와 각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료 공유도 약속했으며, 올 4~5월 사이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동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치민자연과학대에서는 트린 린 트옥(Tran Linh Thuc) 총장을 만나 이 대학 LED 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활발한



전북대 이남호 총장이 지난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와 호치민 자연과학대 등을 방문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는 이 대학과 LED와 농업기술 등의 연구 분야와 대학원생 교류 등을 하고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이러한 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과대학 간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 시행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과학기술이 매우 우수한 양 대학에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총장은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대 동문회를 만나 재호치민시 전북대 신년행사를 열어 대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동문 간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호치민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대학 동문들이 참석해 대학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남호 총장은 "베트남이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대학 역시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명문대학과의 긴밀한 교류는 대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각 대학들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바이오 신소재 이용한 갈색나비매미충 방제제 개발 이회선 교수, 농진청 공로상 영예

전북대학교 이회선 교수(56·농생대 생물환경화학학과·사진)가 한국 농업발전과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의 우수성과 도출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과학인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신소재를 이용한 갈색나비매미충 방제제를 개발, 네이처를 출판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 농업발전과 농업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우수성과 도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와 함께 외국에서 국내에 침입, 환경에 적응한 개체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갈색나비매미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업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SCI급 논문 300편(상위 1% 논문 62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항당뇨병제, 항알러지제, 항안제, 천연살비제, 천연살충제, 장내정화제, LED를 이용한 해충 유인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간 독립적으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민근기자

## 문해력·표현능력 갖춘 민주시민 양성

읽기·말하기·쓰기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읽기·말하기·쓰기교육을 강화한다. 9월 전북도교육청은 문해력과 표현능력을 두루 갖춘 다양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읽기·말하기·쓰기·인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이를 구현하는 물론,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읽기교육의 경우 초등 입학생을 대상으로 4억원을 지원해 책꾸러

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230개팀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3억4천만원) ▲84개 교사 독서교육연구회(1억2천만원) ▲200개교 학부모 학교도서관 도우미활동 지원 등이 펼쳐진다. 지난해 112억을 투자해 37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말하기교육을 위해 80개 중·고등학교에 토론협력실 구축이 지원된다. 유휴교실을 활용, 총 20억원 을 지원해 토론학과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꾸릴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 “교육감 선거연령 16세까지 보장해야”

### 황호진 전 부교육감 “자신의 미래와 직결... 투표 권리 줘야” 강조

황호진(사진) 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OECD 34개 국가 중 19세까지 투표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감 선거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유훈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거참여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우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



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부교육감은 초·중·고교 재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부비법 특강을 열었다. 그는 현재 담쟁이 교육포럼 이사를 맡고 있으며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초청,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